"노후 생활비·병원비 걱정 안해요"

■ 주택연금, 이달부터 확대 시행

집 담보 대출 있거나 임대 했어도 가능

30% 이내 수시 인출… 기존 빚 갚기도

정모(84·광주시 남구 진월동)씨는 최근 '풍요로운 노후'란 말을 실감하고 있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뒤부터 생활비와 병원비 걱정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정씨는 시가 7천200만원짜리 아파트를 종신혼합식 주택연금에 맡기고 월 35만원의 연금과 간병인 급료 등 매달 200만원을 받아서 쓰고 있다.

정씨는 "2~3년 전부터 건강이 악화돼 치료비 부담이 컸는 데 주택연금을 이용한 뒤부터는 걱정 거리가 크게 줄었다"며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흘가분하다"고 말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난해 7월 선보인 역모기지론인 '주택연금'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 당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거나 집의 일부를 임대했다면 가입할 수 없었던 것이 이 달부터 가능해진 것이다. 빚 때문에 가입하고 싶어도 엄두를 못 내던 노인들에겐 희소식이다.

특히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낀 주택 소유자들의 경우 '수시인출금'을 이용해 기존 빚을 상환할 수도 있다. '수시인출금'은 대출한도의 30%내에서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는 금액이다.

그동안 '수시인출금'은 정씨 처럼 의료비 등에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활성화 조치를 통해 용도가 크게 확대됐다. 이같은 혜택은 신규 가입자는 물론, 기존 종신혼합식 가입자라면 모두에게 해당된다.

이처럼 주택연금이 '너그러워'진 것은 도입 초기 홍보 미흡을 극복하고 '은퇴 후 보험'이란 인식을 확대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실제 주택연금은 지난해 7월 도입된 이후 지난달 말까지 광주·전남에서 17명이 가입하는 데 그쳤다. 전국의 경우도 총 577건의 가입실적을 올리는 등 당초 기대를 밑돌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번 활성화 조치로 인해 가입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5월 말부터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월 지급금을 받는 물가연동형 상품도 출시된다. 이는 평생 똑같은 월 지급금을 받는 현행 상품과는 달리 가입 초기에는 적게 받다가 매년 3%씩 금액을 늘려 받도록 돼 있다.

정 진 주택금융공사 광주지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무엇보다 수시인출금으로 기존 빚을 상환하면 기존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없어진다는 강점도 있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주택연금=집을 보유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사망할 때까지 매달 생활비를 연금식으로 타서 쓰는 금융상품으로, 시가 6억원 이하의 1주택자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

사후에 집을 처분해서 대출금을 일시에 갚게 되며, 정산 후 남는 금액은 자녀에게 상속된다. 시중은행, 보험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튤립축제에 오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점장 구수회) 정문 앞에서 진행중인 튤립축제를 찾은 고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튤립축제는 지난 21일 시작돼 오는 5월1일까지 계속된다. 〈롯데광주점 제공〉

현대·기아 하이브리드카 본격 양산

정몽구 회장 이명박 대통령 광주 방문때 밝혀

현대·기아차(회장 정몽구)가 2009년 하이브리드카 양산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23일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정몽구 회장은 지난 21일 이명박 대통령이 기아차 광주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내년에 친환경차 양산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내년에 준중형급 모델인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 양산에 들어가며, 2010년에는 중형 가솔린 및 LPG 하이브리드 생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현대·기아차는 2004년 10월 클릭 하이브리드카 50대를 정부기관에 첫 공급하면서 친환경 미래자동차 시장에 뛰어든 뒤 작년까지 베르나, 프라이드 등 총 2천800여대의 하이브리드 차량을 생산했다.

정 회장은 이와함께 2012년부터 연료전지차를 소량생산해 조기 실용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2010년부터 연료전지차 시범운행을, 중대형SUV를 포함해 총 500대로 확대한 후 소량 생산체제를 구축해 2012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전세계적으로 하이브리드카는 2006년 39만125대, 2007년 51만7천911대가 판매됐으며 올해 75만대, 2010년 100만대 이상으로 시장규모가 커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기아 콘셉트카 쿱 '뉴욕 국제 오토쇼' 전시

기아자동차는 지난 20일 미국 뉴욕 제이콥 제이비츠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08 뉴욕 국제 오토쇼(NYIAS)'에 콘셉트카 'KOUP(쿱·사진)'과 '로체 개조차'를 비롯해 9개 차종 13대의 차량을 전시했다.

기아차 미국디자인센터에서 제작된 'KOUP'은 균형잡힌 외관과 유선형의 디자인으로 운전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동시에 '즐겁고 활력이 넘치는(Exciting and Enabling)'이라는 기아차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담았다. 290마력(hp), 2.0ℓ 세타(Theta) II 터보 엔진을 탑재한 'KOUP'은 6개의 기본 에어백과 타이어 공기압 조절 시스템 등을 적용, 높은 안전성을 바탕으로 파워풀한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전 모델보다 날렵하고 역동적인 스타일로 스포티한 이미지를 강조한 '로체 개조차'는 일체화된 램프와 라디에이터 그릴을 통해 전면부를 역동적이며 강한 인상의 캐릭터로 꾸몄으며, 날렵해진 헤드램프로 이어지며 매끄럽게 마무리해 스포티한 이미지를 추구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소상공인 컨설팅사업 지원

광주·전남중기청 영업전략·경영혁신 등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박춘근)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확보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컨설팅사업을 지원한다.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자영업컨설팅 지원사업은 근로자 5인 미만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영업전략 수립, 메뉴개발 등 경영혁신, 업종변경, 프렌차이즈화, 쇼핑몰 구축, 사업정리 등 자영업 창업 및 경영전반에 관해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정리와 상사분쟁 등에 대하 대한법률구조공단(http : //www.klac.or.kr 전화 02-532-0132)과 연계, 무료로 법률구조를 지원(1건당 승소금액 2억원 이내)받을 수 있게 했다.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온라인(www.sbdc.or.kr)이나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에 신청하고 수수료 5만원을 납입하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컨설팅비용은 정부에서 최대 130만원까지 지원한다.

한편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은 지난해 348개 업체에 대해 1억8천100만원 자영업컨설팅자금을 지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광주 일곡지구 등 6곳

상업용지·택지 매각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본부(본부장 한우석)는 광주 일곡지구 등 6개 사업지구내 상업용지와 택지 등의 토지를 매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토지가 공급되는 곳은 광주 일곡지구, 신창지구, 하남2지구, 문흥지구, 풍암지구, 나주 대호지구 등이며, 총 83필지(3만7천700㎡)가 매각된다.

용도별로는 일반상업용지 5필지(8천347㎡)를 비롯, ▲준주거용지 3필지(2천622㎡) ▲점포겸용 단독택지 17필지(5천29㎡) ▲주거전용 택지 56필지(2만127㎡) 등이다.

매각방식은 점포겸용 단독택지와 주거전용 단독택지는 추첨으로, 나머지 택지는 과 공개 경쟁입찰로 진행된다.

입찰은 4월14~15일, 추첨은 4월17~18일 각각 실시된다. 문의 062-360-3165.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1조합 1품목 전문화 추진' 결의

농협광주지역본부 '광주농협 CEO 워크숍'

농협광주지역본부(본부장 신성수)는 지난 20~21일 보성 다비치콘도에서 관내 중앙회와 지역농협 전 지점장 130여명을 대상으로 '광주농협 CEO 워크숍'을 가졌다. 〈사진〉

이번 행사는 광주관내 지사무소장의 역할증대, 광주농협 CEO의 경영마인드 업그레이드를 통해 '농협다운 농협, 신뢰받는 농협, 하나되는 농협'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소비지 유통 활성화, 1조합 1품목 전문화 추진 등을 통해 농업인의 실익증진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또 이화여대 김진호 교수가 '한국 경제와 금융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신성수 광주본부장은 "농협 스스로 변화와 개혁을 실천해 농협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농업인에 대한 무한봉사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光州日報 인터넷 신문 www.kwangju.co.kr